<2022년 3월 11일 금요일 새벽, 주 말씀>

1. 눈으로만 보려고 하지 말고, 생각으로 느끼고 보아라.

2. 하나님이 늘 나타나셔도 육신의 눈으로는 안 보인다. 하나님의 기본 형상은 아니, 마음과 생각으로 느끼며 보아라.

3. 육의 세계의 것도 눈으로 보지 못하는 것은 그 형상과 모양을 아니, 마음과 생각의 눈으로 보아라.

4. 존재물이 천 리나 떨어져 있어도, 혹은 가까이 있어도 마음과 생각으로 보면 더 느끼고 알게 된다. 굳이 손으로 만져보고 몸이 닿아야 느끼는 것이 아니다.

5. 천국도 가서 보고 느끼기보다, 생각으로 보고 느끼면 실체로 가보는 것과 같다. 자기 혼이 보고 느끼면, 육으로 전달된다. 돌이나 나무나 각종 만물도 그러하고, 사람도 그러하다. 눈을 감고 영적으로 들어가서 보면, 자기 영적 세계에서 이상이나 환상으로 만져보고 알게 된다.

6. 성령님이 자기를 쓰고 은밀하게 행하시니, 자기를 연구해야 성령의 행하심을 알게 된다.

7. 성령님은 항상 자세하게 돕고 함께하시니, 사사건건 자세히 생각하고 집중해야 그 행하심을 알게 된다.

8. 관심을 가져야, 성령님이 같이 돕고 행하심을 알게 된다.

9. 성령님과 이야기를 많이 해야, 성령의 행하심을 알게 된다.

10. 꿈에 나타난 것이 계시다. 하나님은 항상 징조를 보이시고, 그 징조를 따라 행하신다.

11. 사람이 스스로 생각하고 행해도, 하나님은 끝에 가서 그 생각을 틀어서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신다.

12. 하나님과 성령님과 성자는 절대신이시니, 지구 세상 온 인류를 한 명, 한 명 주관하시며 그 뜻을 두고 행하신다.

13. 누구든지 한계의 선을 넘어서 행하면, 하나님은 절대로 용납하지 않으시고 그 행위대로 갚아 주시고 주관하신다.